

“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한반도 완전 비핵화 동의”

민주, 백신·기후변화·남북관계 등 논의 한미정상회담 호평 국민의힘 “성과 안주 말고 백신협력방안 국민앞에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적 쾌거라고 일제히 호평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대권주자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도 앞다퉀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신북지포럼 총남 행사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마음을 모았고, 미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됐다”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백신 확보 방안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은 당장 백신이 급한데 사실상 모든(백신) 계획이 중장기적”이라며 “이제부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지휘자만이 아닌,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크렌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진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한미 정상 의 약속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이 뻔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중국의 반발

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盧 꿈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광재 27일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통합을 위해 도전하겠다”며 “27일 노 대통령이 자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희정 전 총남지사와 함께 ‘우광재·좌희정’으로 불렸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원조 진노 인사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 등과 힘을 모아 노 대통령의 거대한 역사의 물결기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개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7龍”...윤석열·최재형·김동연 포함

윤 전 총장 영입 불확실성 우려 중립지대 일부주자 야권 편입 포석

국민의힘이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7龍(龍)’을 거론하고 있다. 당 안팎의 잠룡뿐만 아니라 아직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대주까지 포함한 숫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우리 당 소속 주자들을 필두로, 당 밖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호감도 높은 주자까지 더하면 모두 7龍”이라고 했다. 7명 주자는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장외 최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보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가리킨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들 7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며 ‘반문(반문재인) 그 이상의 대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부총리 등 중립지대에 놓인 일부 주자를 놓고 여권과 ‘영입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매력적인 인물들을 최대한 호명해 야권주자로 규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일종의 ‘가두리’를 쳐 놓는 전략인 셈이다.

이처럼 7룡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윤 전 총장 영입에 대한 불확실성도 깔려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야권 지지층에 ‘대안’을 제시하고, 윤 전 총장의 신속한 진로 결정도 촉구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지만 윤 전 총장보다 강성 이미지는 덜하다는 점에서 소위 ‘순한 윤석열’이라 불리는 최재형 원장을 거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뜨거운 감자’ 중부세 결론 못 낸 민주 25일 의총 주목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중합부동산세 조정을 두고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김진표 부동산특위’ 초기만 해도 과제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당내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형국이다.

23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책 위원총회에 특위에서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중합부동산세의 경우 앞서 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안이 의총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중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더불어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안 ▲부과 대상자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크게 4가지 안을 의총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담보대출비용(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 아직 단일안 형태로 공감대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위원은 “생애 첫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구매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선에서만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이 지난 2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20대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민주당 전남도의원 38명 ‘이낙연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이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은 지난 21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장석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과 도약의 정신을 실천하고 구현해나갈 최적임자는 이낙연 전 총리”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최적적자이신 이 전 총리를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은 “지방이 잘 살면 우리 국민이 잘 살

게 되고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싹을 틔웠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 전 총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시대를 이루는 것이 역사적·시대적 과제”라며 “이 전 총리가 이러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 지지 선언 민주당 도의원 명단에는 목포·여수·광양·무안·나주·화순지역 도의원 15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남도의원은 모두 58명으로 민주당 53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

-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스,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점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 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루스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막산석리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로 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빌딩 2층 동광주빌딩 내